

# 환경재난과 안전사회

## 안전사회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

- 안전은 행복이라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충분히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각종 사건사고 및 사회재난은 개인 및 국가의 안전을 위협
  -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황해상에서 인천발 제주해 국내선 여객선에서 발생한 침몰사고로 범사회적 안전의식 중요성에 대한 계기를 제공
- 우리사회는 자연재해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건사고 및 재난에 대해 준비가 필요
  - 자연재난에는 태풍, 홍수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낙뢰, 가뭄, 지진, 황사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가 해당
  - 사회재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화재, 붕괴, 폭발, 교통사고, 화생방사고, 환경오염사고, 감염병, 에너지·통신·교통·금융·의료·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가 해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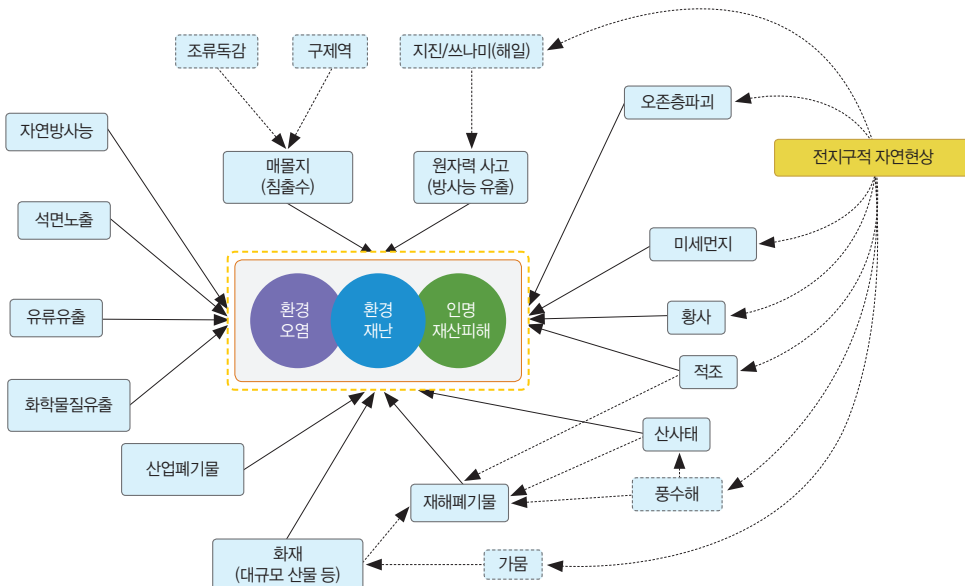
안전은 행복이라는 헌법상 권리를 누리기 위해 최근 안전사회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 증가 추세

## 우리사회의 환경재난

### 환경재난이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동반하는 사회재난 규모의 환경오염 및 환경사고를 의미

- 환경재난은 특정사건이 발생시점부터 환경재난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, 사건발생 시에는 자연재해나 기타 사고의 속성을 갖지만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환경재난의 속성 견지
  - 원자력 누출사고나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대규모 환경오염 및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가장 일반적인 환경재난
  -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지방의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는 광역 차원의 환경 및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대표적 환경재난 사례 중 하나
  - 오존층 파괴나 기후변화 또한 전 지구적 규모로 발생하는 환경재난

### 우리사회의 환경재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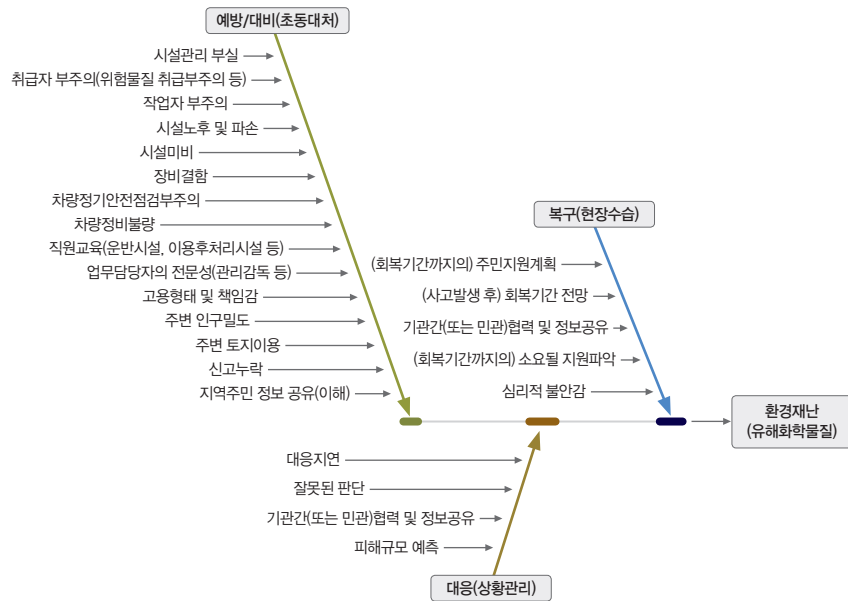
환경과 관련된 재난의 속성을 살펴보고 자연재해나 사건사고가 환경재난으로 전이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 필요

## 환경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방향

### 2차 환경피해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

- 환경재난은 다양한 형태의 재난사고 및 사건이 환경재난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, 각종 사고가 환경재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사고수습 및 복구의 지원 및 협의 필요
  - 교통, 선박 등 재난사고의 평상시 관리 및 재난사고 수습 및 복구, 그로 인한 환경재난의 수습주체는 관련 부서에서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

#### ■ 유해화학물질 주요 원인에 대한 Fishbone diagram



자료 : 경기개발연구원(2014)

### 환경분야 안전조직 강화를 통한 환경분야 종합 리스크 관리 필요

- 경기도는 유해화학물질을 담당하는 안전관리과와 더불어 다양한 생활 속 유해환경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행정조직에 대한 고려 필요
  - 생활전반의 환경안전 담당인력 확보를 통해 주민 건강검진 사업 실시 및 생활 주변 방사선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보건분야와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
- 환경안전 정보센터를 통한 다양한 정보의 구축 및 전달, 분석, 주민의 알권리 실천이 필요
  - 환경안전 정보센터는 주민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안전심리 관점의 환경재난 실천 수단
  -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생활방사능 및 석면과 같은 우리 생활 주변을 둘러싼 유해환경에 대한 좀 더 실질적인 대응 노력과 지속적인 안전 홍보 필요
- 환경안전 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체계적 환경안전관리의 행정력 확보가 중요
  - 경기도에는 국내 환경위해시설의 약 30%가 입지하고 있으나 도내 환경안전 담당인력은 총 53명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전문인력 확보가 절실
  - 도내 화학사고 발생건수는 2011년 2건, 2012년 9건, 2013년 3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(경기도, 2014)
- 소방직 및 개발부서 공무원 대상의 환경안전교육 및 교환근무 추진
  - 환경직 분야와 소방, 방재직 분야 간의 업무교육과 교환근무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고 지속적인 환경재난 안전 교육을 통해 전문성 확보 필요